

# CA 선박 기술 '참외 수출' 새장 열어

### 농진청, 신선도 유지 기간 10일 정도인 참외... 싱가포르 선박 수출 성공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참외를 장거리까지 경제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온도와 공기 조성을 조절하는 시에이(CA) 선박 기술을 적용, 우리 참외를 싱가포르까지 안정적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시에이(CA, Controlled Atmosphere)는 산소 농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대기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작물의 호흡을 억제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술이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수출 컨테이너에 이 기술을 적용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시에이(CA) 선박 기술로 참외를 다른 농산물과 혼합 선적해 홍콩(7일 거리)에 수출한 적은 있지만 비교적 장거리에 속하는 싱가포르에 참외 단독 수출을 시도해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진은 지난 6월 말 참외 25톤을

실은 시에이(CA) 컨테이너 수송 조건을 온도 4도(°C), 산소 농도 5% 이상, 이산화탄소 농도 12%로 설정했다. 동시에 현지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예비 냉장과 포장 기술을 적용했다.

유통상 문제로 평소보다 수송기간이 3~5일 지연(총 18일)되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있었지만, 현지 조사 결과 참외의 손실률은 1% 이하로 매우 낮았다. 기존 일반 선박 컨테이너로 수출할 때의 손실률 25~40%와 비교하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시에이(CA) 선박 기술을 적용한 참외는 처음 수확했을 때와 비슷하게 색깔 색과 겉모양, 아삭함을 유지했고 곰팡이 부패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수출 참외 전량은 싱가포르 한인 판매점에서 이틀간 완판됐으며, 참외를

맛본 소비자들은 '항공수송 참외와 비슷' (57%) 하거나 '더 맛있다' (43%)라고 평가했다. 현지 한인 온라인 모임에서도 오랜만에 들어온 신선 참외 구매 문의가 이어졌다. 현지 수입업체는 시에이(CA) 기술을 적용해 참외 외에도 농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의사를 전해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로 통상 10일 이상 걸리던 싱가포르 선박 수출이 성공하면서 캐나다, 베트남, 태국까지 참외 수출국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또한 항공수송을 대체해 50% 정도의 물류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지인들이 참외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을 담은 홍보 전단을 제작, 판매점과 한인 식당 등 160여 곳에 배부했다.

/김육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제3차 KBIZ 문화경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제3차 KBIZ 문화경영포럼'

### 이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강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제3차 KBIZ 문화경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BIZ 문화경영포럼은 중소기업 경영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및 임직원 등 200여명이 자리했다.

이번 포럼에는 제18~20대 국회의원 및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비서관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현 부위원장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정현 부위원장은 "인구·소득·일자리의 수도권 몰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군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교육·의료체계 개선으로 지방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지방경쟁력을 향상시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육기 기자

## 새만금청, 적극행정으로 건축 인허가 실적 '쑥쑥'

### 10.2조원 투자유치 따른 효과로 건축 인허가 50% 이상 증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7월 23일 2024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동안 총 137건의 건축 인허가가 승인, 작년 같은 기간의 91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건축 인허가 승인 면적도 전년 8만362㎡ 대비 약 72%가 상승한 약 137,998㎡에 이르렀다.

특히,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신속한 행정처리로 처리 기간을 많이 단축한 것이 눈에 띄는데,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인 성일하이텍과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업체인 솔머티얼즈 공장 건축 인허가는 처리기간보다 18일과 12일 단축했으며, 이차전

지소재 제조사인 에스이머티얼즈 공장 건축물의 사용승인 과정에서 처리기간보다 15일이나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성일하이텍 관계자는 "금번 건축 인허가에서 신속한 행정처리로 공장을 제때 가동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성과는 새만금개발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2조 원의 투자유치를 이룬 효과로, 탄탄한 기업 지원과 이에 따른 적극 행정에 의해 건축 인허가 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만금의 건축 인허가 실적 증가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새만금 지역 내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이는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보여진다.

노유진 정보민원담당관은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유치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입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건축 인허가 증가는 새만금이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 팁스 운영사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 민간투자 주도형 육성 프로그램 팁스(TIPS) 운영사로 선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

팁스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창업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TIPS 운영사가 역할을 갖춘 창업기업을 발굴해 1억 원 이상 투자하면 중소기업에서 사업당 7억 원에서 최대 15억 원의 지원금이 매칭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전북혁신센터는 매년 5개 이

상 도내 기업을 팁스 공모에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

팁스는 창업기업의 데스크톱 극복과 후속 투자 유치 등의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2022년까지 도내 운영사가 없어 도내 창업기업이 팁스 기업으로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컸다.

한편 이와 같은 성과는 전북자치도와 혁신센터가 협력하여 도는 수도권 유명 팁스운영사를 유치, 센터는 노하우를 이전받아 별도의 TF팀을 운영하고 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모태펀드에

선정되는 등의 노력이 따른 결과이다.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팁스운영사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 창업생태계뿐 아니라 투자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후 후속 투자 연계 및 추가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내실 있는 팁스운영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건협 전북, 정부합동조사단 특별재난지역 방문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소재철)는 23일 원주군청 1층에 설치된 정부합동조사단(지경용 조사위원장)을 방문해 지난 8~10일간의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익산과 군산, 무주 지역 등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철저한 피해 상황조사를 건의했다.

이날 소재철 회장은 중앙합동조사단 반장인 지경용 행정안전부 방재안전사무관을 만나 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 수립 시 개선복구사업 대폭 확대 반영을 강조하며, '지역·지형특성과 시설물간 연계성을 고려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과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 중앙합동조사단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공공시설 피해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3일 원주군청 1층에 설치된 정부합동조사단을 방문해 지난 8~10일간의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익산과 군산, 무주 지역 등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철저한 피해 상황조사를 건의했다.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진행하며, 피해 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도로·하천 등 대규모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상황 관리,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명·주택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육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